

본문: 민수기 9:15~23

제목: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

## - 설교 한문장 요약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인생의 광야를 살아갑니다”

### 1.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בְּרַחֲמָיִם”, “광야에서”입니다. 이름 그대로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시내산을 떠나 광야생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은 대한민국이라도 도시 사람과 농촌 사람의 삶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전까지만해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살아가야하는 곳은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웠던 모든 것들은 광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생활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는 신명기 8:15은 광야를 가리켜 “광대하다”,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했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미 출애굽기 마지막에 기록된 성막이 세워지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불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고, 이것으로 광야생활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행진해야 했고, 구름이 머물면 진을 쳐야 했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무르면 이스라엘은 그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했습니다. 때로는 저녁에 진을 쳤다가도 다음날 아침에 행진해야 했고, 혹은 낮에 진을 쳤다가도 그 밤에 행진해야 했습니다. 광야의 가고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구름이 떠오르고 머무는 것을 가리켜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가본적 없는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광야”라는 공간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광야같은 상황을 목전에 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7~9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요약하자면 “여호와의 말씀(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2.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도 가본적 없는 인생이라는 광야는 너무나 광대해서 어찌해야 할지도, 무엇해야 할지도 모르고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없으시면 안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자신은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게 행진의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광야에 오랫동안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빠르게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멈춰버린 것 같을 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불안하고 초조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춰야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돌아가야 하는 곳을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멈춰서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길이 광야를 지나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물론, 광야라고 하더라도 항상 괴롭고 힘든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쉼만한 물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거쳐가는 곳이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보여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우리는 미련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멈추고, 행진하게 하시면 행진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명령(말씀)을 따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 길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 길을 하나님만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

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를 신뢰함으로 인생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본문: 민수기 14:26~38

제목: 시작된 광야생활

### - 설교 한문장 요약

“우리를 온전하게 빛으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 1. 음행으로 시작된 광야생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파 별로 1명씩, 12명을 선발하여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정탐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탐 결과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멸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죄는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평과 원망의 말은 앞선 2~4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했기에 광야에서 엎드릴 것입니다.(3, 29, 32절)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말했기에 칼에 망하게 되었습니다.(3, 43절) 또한 40일을 정탐했으니, 하루를 일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것,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33절은 이를 “반역한 죄”라고 번역된 “מרד”의 본래 의미는 “음행”, “음란”, 혹은 “매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거절하는 것을 음행한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앞선 불평과 원망하는 말의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심으로 애굽과의 결별하고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혼인과 같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신혼집, 성막도 지어주셨습니다. 매일의 만나와 반석의 물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고 말하며 자기들을 반대하는 다른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이 받아 누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영적 간음이었으며, 성경은 이러한 영적 간음을 우상숭배와 동일선상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불평과 원망의 말, 혹은 군중심리에 동조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나아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그날 아침에도 그들에게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들은 40년간 광야를 떠돌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책임을 지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랑을 돌이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1장에서 계수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 남겨진 새로운 세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망과 불평, 영적 간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변화시키심으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된 광야생활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결론 지으십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신 8:15)

## 2. 하나님께서 마치실 광야생활

우리의 인생이 이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현실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심지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음행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지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옛 사람을 죽고 새로운 사람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그것이 광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언제나 100%입니다. 광야의 끝에서 완성될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본문: 민수기 21:4~9

제목: 불뱀을 보시오

### - 설교 한문장 요약

“매일 매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 1. 장대에 달린 불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함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민수기는 이러한 광야생활에 대한 기록은 불평과 원망, 그리고 이에 대한 심판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계하시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그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동편의 모압 평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모압평지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에돔 속속의 땅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선 20장에서 에돔왕이 이스라엘의 통행을 거절합니다. 하는 수 없이 백성들은 에돔 땅을 우회하여 홍해 길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매우 어렵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선 20장 호르마 전쟁의 승리를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상하여(참지 못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들은 먼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광야생활과 광야에서 죽음은 출애굽 때문이 아니라 약 40년 전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거절했기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만나를 가리켜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된 만나를 폄하하는 것은 하나님을 폄하하고 업신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고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그제야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으로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불뱀을 물려달라고 간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간구하기도 전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 것”과 이 장대에 달린 “불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낚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낚 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수 많은 상징물이 있을 터인데, 지금 그들을 괴롭게하는 불뱀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요한복음 3장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불뱀은 우리의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고 불뱀을 쳐다보듯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자신의 죄인 되었음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비참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비참함과 괴로움을 진정으로 인정해야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불뱀을, 그들의 죄의 결과로 그들을 괴롭게 하는 심판의 불뱀을 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 2.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시스템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을 뛰어넘어 죄인 된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니 당연히 비참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비참함과 괴로움이 없다면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은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불뱀)을 보면 살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비록 숨을 쉬고 있어도 사실은 죄로 인해 죽었다는 사실을, 이 사망으로부터 어떠한 지혜와 노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다는 비참하고 괴로운 사실을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뱀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요한복음의 영생은 죽었다 부활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비참함을 마주하고 이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세기어 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매 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본문: 민수기 27:12~27**

**제목: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 - 설교 한문장 요약

“하나님께 순종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합니다”

## 1. 영이 머무는 사람,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 다시 인구조사를 명령하시고, 이어서 상속받을 아들이 없이 딸만 남기고 죽은 스로브합의 분깃에 대한 내용까지 세세하게 다루시며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정복하기는 커녕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모세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면에선 모세에게 잔인한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에게 그 이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못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떠나고 남겨질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며 전쟁을 치를 사람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남겨질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언급하시며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앞에 세워 모세의 역할을 위탁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여호수아를 모세가 요청한 전쟁에 능한 사람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대신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40년 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이 머무는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영이 머무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이 머무는 자란 어떤 사람인지 본문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영이 머무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유추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으로 모세의 중요한 행적에 함께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 한 후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는 시내산 언약을 맺는 그때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는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듯 대면하고 진영으로 돌아 왔을 때 초차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고 백성들을 권면한 두 사람 중 하나, 출애굽과 홍해도하부터 가나안 땅 정복을 모두 경험한 두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혜롭거나 실력이 뛰어나거나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를 능력있는 리더십 보다 그 리더십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존귀(권위, 영광)의 일부를 물려주어 백성들이 순종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부인 이유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르아살과 함께 여호수아를 회중 앞에 세우고 안수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모세의 간구대로 이스라엘은 모세가 떠나도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 2.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영이 머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이르러 바울은 디모데후서 2:20~21에서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은 그 그릇의 외형이나 쓰임새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에게 역할과 일을 맡기는 기준은 실력과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할과 일을 맡기는 기준은 다릅니다. 교회의 일은, 사역은 사람의 역량과 노력을 통해 성과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역량과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량과 노력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머무시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이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 참고 문헌 및 설교

『민수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목회와신학 편집부 엮음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대한기독교서회, 왕대일

『현대성서주석: 민수기』, 한국장로교출판사, 데니스 올슨

『엑스포지멘터리: 민수기』, 국제제자훈련원, 송병현

우면동교회, 정준경 목사 설교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2023. 01. 22)

우면동교회, 정준경 목사 설교 『새벽예배 민수기 강해』 (2023. 04. 18)